

무주군, 정부정책 대응 나서

부처 기관별 업무보고 분석 시책 발굴 주력

무주가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을 꾀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 및 기관이 △혁신성장 △한반도평화 △포용국가 △국민안전, 공정·정의 등 5대 분야별 핵심과제에 맞춰 마련한 올해 업무계획을 분석,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역 여건에 맞는 총 33건의 공모(10건) 및 국가예산(5건), 정책 사업(18건)을 발굴했으며 앞으로 그에 맞는 무주군 자체 시책도 발굴·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태권도 문화콘텐츠기반 관광 생태계 조성사업과 △생물체육시설 확충사업, △가족센터 건립(생활 SOC 사업), △전통시장 특성화사업(회랑

사업 프로젝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2020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모 신청에 나서는 등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또 △무진장 농·식품 벨트화를 통한 FOD센터 구축(연계협력사업)과 △공립요양원 개설 타당성 검토(치매전문병동 확충 사업 유치), △신규 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4-H)육성 등 국가예산사업 추진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외 지역경제에 직접 기여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등 도입·확대 정

책에 기반을 두고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생활밀착형 숲 확대 정책에 따른 '백운산 생태 숲 일일 야생과 마을 정원 조성' 사업과 스마트 농업 확산 정책과 연계한 'ICT접목 첨단 시설하우스 농업육성(공약) 사업 등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중앙부처 업무계획 대응전략 보고회를 주재한 무주군청 윤여일 부군수는 "중앙부처 정책과 업무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연계·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정책이 뒷받침되고 실행이 따라줄 때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주도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공무원 각자, 각 부서 간 역량을 모아나갈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청 민원실 주민들 위한 노력 눈길

직원 친절교육 실시

무주군이 배려 넘치는 민원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매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은 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전화 및 방문인 응대요령을

비롯한 △담당자 부재 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할 것 등을 공유하고 있다.

친절교육을 직접 맡아 진행하고 있는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장효순 과장은 "주민들과 항상 대면해야 하는 부서의 특성상 남다른 마음가짐과 실천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챙기고 있다"

라며 "직원들이 대민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대응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면서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 동료들 간에도 돈독해지고 부서 내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민원실의 쾌적함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비치하고 꽃 가꾸기 등 환경정비에도 힘쓰고 있으며 근무복을 착용해 직원들에게는 소속감과 책임감을, 민원인들에게는 신뢰감과 편안함을 주고 있다.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해 사무실 내에서는 종이컵을 안 쓰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점자업무 안내책자와 보청기, 확대경, 휠체어, 자동 전자혈압계 등을 비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각장애인을 응대하기 위한 직원 대상 수어교육과 구두로 민원을 신청하는 구술민원 확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외 법령 개정 등 변동사항이 반영된 민원편람도 수시로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이 배려 넘치는 민원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매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진안군, 농번기 공동급식 본격

진안군이 농번기철 여성 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과 영농 참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올해도 본격 추진한다.

농번기 공동급식은 공동급식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참여인원이 20인 이상이 되는 마을을 선정하여 조리원 인건비 160만원, 부식비 160만원 총 3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지난해보다 7200만원 증액한 1억4400만원을 투입하여 총45

개 마을을 지원키로 했다.

김덕규 농업정책과장은 "농촌 고령화·부녀화에 따라 마을 공동급식이 일손부족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마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

지역 매아리

장수군, 농업기계 등화장치 무료 부착 지원 완료



장수군은 지난 29일 장수를 대성리 구평마을에서 장영수 군수, 김종문 군의장, 한국회 부의장, 박용근 도의원, 공무원 등 3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74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장수군이 최근 관내 200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기계 등화장치 무료 부착 지원을 완료했다.

농기계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실시된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군은 경운기와 트랙터 보유 농가 중 등화장치가 미부착 된 200농가에 대해 농업기계 등화장치를 무료로 부착했다.

또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기계 안전사용 방법, 야간 운전시 주의점 등에 대해 교육했다.

서정원 소장은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농업기계의 야간 도로주행이 많아지고 있다"며 "등화장치 부착사업이 농업기계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소나무 3,000그루 식재

장수군은 지난 29일 장수를 대성리 구평마을에서 장영수 군수, 김종문 군의장, 한국회 부의장, 박용근 도의원, 공무원 등 3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74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대기오염물질의 흡수, 흡착 능력이 높아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우수한 산림청 권장 주요 조림수종인 소나무 3,000그

루를 식재했다.

군은 이와 함께 올해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에 대비해 275ha의 면적에 경제수 및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영수 군수는 "미세먼지와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산림의 중요성과 소중함이 커지고 있다"며 "나무를 소중하게 가꾸고 숲 조성을 추진해 경제적·공익적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저수지 국가안전대진단

진안군이 영농기를 맞아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116개 농업용 저수지 중 2018년 말 기준 시설관리자의 정기 안전점검 결과(등급)에 따라 일정을 나눠 진행한다.

진안 '군민이 행복한 희망 나무심기'

편백나무 2,000본 식재

진안군은 제74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29일 마이산 남부 일원에서 '군민이 행복한 희망 나무심기'라는 주제로 식목일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식목일을 앞두고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나무심기를 통한 자연친화적 희망 진안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나무심기에는 최성용 부군수와 신갑수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군청 직원,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군민 등 500여 명이 참여

했으며, 1.5ha 산림에 편백나무 4천본, 2,000본을 식재했다.

이날 진안군산림조합은 내 집과 생활주변에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나무심기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사 참여자에게 왕대추, 미니사과 묘목 1천주를 나누어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최성용 부군수는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소중하게 가꾼 산림이 화재로 인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산불 예방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